

15년의 외침 ... 日은 여전히 '묵묵부답'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수요집회 700회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해왔던 수요집회가 3월 15일 700회를 맞았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오전 11시 30분에 모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1명은, 참가자들과 함께 '일본은 전쟁범죄를 인정하라'는 피켓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일본은 위안부 진상을 규명하고 일본의 성범죄를 인정하라! 위안부 문제를 공식 사죄하라! 그리고 조속히 법적 배상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다시는 이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교과서에 기록하라! 위안부를 위한 추모비를 건립하라!" 15년간 매주 외쳐왔던 '7대 강령'이지만 이 중에서 지금까지 일본이

수용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김순옥 할머니는 "집회가 700회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화나는 일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응수 할머니도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죽지 않겠다"고 한 맺힌 목소리로 말했다.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전 일본 총리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수요집회는 2003년 3월 500번째 시위를 넘기자 기네스북에 '단일 주제로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어진 집회'로 등재됐다. 수요집회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널리 알려지자, 유엔과 국제노동조합은 일본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당초 225명의 위안부



3월15일 700회 수요집회 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외교통상부로 행진하고 있다.

할머니 중 105명은 세상을 떠났다. 7개 도시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또 시위가 끝난 후에는 외교통상부를 방문, 적극적인 외교를 주문하는 요구서와 200여 시민들이 작성한 엽서를 전달했다. 이번 집회는 국내외 48개 시민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외에 부산 일본영사관과 뉴욕, 베를린, 런던 등 해외의 13개 도시, 일본 내

천태종립 금강대 교육여건 '매우 우수' 동국·위덕대 '중위권'

천태종립 금강대가 전국 사립대학교 중 교육여건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2004년도 사립대학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강대는 '학생 1인당 장학금'이 564만원으로 전국 154개 사립대학교 중 1위를 차지했다. 금강대는 '등록금 환원율'에서도 985%로 3위를 기록했다. 등록금 환원율은 대학측이 학생 1명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로, 학생 1명으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나눈 값이다. 금강대는 '학생 1인당 교육비(493만원)'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8.4명)'에서도 3위의 성적을 나타냈다. 그러나 교수 1인당 연구비는 980만원으로 99위에 머물렀다. 조계종립 동국대는 '등록금 환원율'이 1123%로 91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690만원으로 65위, '교수 1인당 연구비'가 3990만원으로 29위,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가 45.1명으로 124위, '학생 1인당 장학금'이 95만원으로 44위 등 '중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종립 위덕대도 '등록금 환원율'이 120.1%로 62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690만원으로 65위, '교수 1인당 연구비'가 1430만원으로 78위,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가 36.2명으로 67위, '학생 1인당 장학금'이 94만원으로 45위 등 동국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장애인 6~7명에게 의료지원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랜드도 근로시장에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저소득 장애인 이용료를 50% 감면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031)399-1087 글·사진=군포이벤이 기자

4월 30일 종로 '연등물결'

시청앞 점등식은 20일 ... 봉축일정 나와

'신명나고 역동적인 참여축제'를 목표로 불기 2550년 연등축제가 4월 30일 서울 종로일대에서 열린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20일 시청 앞 점등식을 시작으로 28일 전통등 전시회, 29일 연등축제 전야제, 30일 불교문화마당, 연등법회, 제등행렬, 대동한마당 등을 차례로 펼친다. 올해 봉축행사는 예년과 달리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크게 바뀐다. 이와 관련 봉축위는 1월부터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와 공동으로 '연등축제 율동자료집'을 발간해 전국사찰 및 불교단체에 보급했다. 봉축표어 '우리로 부처님 같이,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밝고 경쾌한 분위기에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한다는 계획을 세운 봉축위는 지난해 줄은 줄은 신도 참여가 저조했다는 분석에 따라 어린이와 젊은층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올해 연등축제는 4월 28일 전통등연대회 임상차 위주로 강남 봉은사에서 열리는 전통등전 시화로 시작된다. 연등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29일에는 인사동 조계사 앞길에서 펼쳐지는 연등축제 전야제에서는 연등축제의 꽃인 장엄등과 연화등이 한자리에 모여 흥겨운 잔치판을 벌인다. 본행사가 열리는 30일에는 60여개 단체가 참가하는 불교문화마당(거리행사)이 열려, 전래놀이와 각종 전통 문화공연, 공예 및 미술, 조각 등 전통미술 시연, 고택, 합장주, 사진찍기 체험, 사찰음식, 장류 등 먹을거리와 전통문화 상품을 전시·판매한다. 또 연등법회가 열리는 오후 4시부터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3만명 이상의 제등행렬 참가자가 한자리에 모여 흥겹고 신명나는 어울림 마당을 펼친다. 오후 7시에는 장엄등 연등등 10만여 개가 서울 종로를 환하게 밝히는 제등행렬이 시작되고, 오후 9시 30분부터는 제등행렬의 열기를 모아 꽃비가 흩날리는 조계사 앞 거리에서 대동놀이로 연등축제의 끝을 장식한다. (02)2011-1744 조용수 기자

"대중목욕탕 갈 엄두도 못냈는데..."

복지관-기업 손잡고 저소득장애인 지원

"찜질방은 처음 봐요. 제가 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면 적도 없었는데...너무 좋네요." 불편한 거동과 시각장애 때문에 평소 대중목욕탕 이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장애인대아파트에 딸려 있는 1평짜리 욕실에서 샤워를 해야 했던 김장복(56·시각장애 1급)씨. 그러나 오늘은 흥쾌하고 넓은 찜질방과 대중목욕탕에서 여유롭게 목욕을 마쳤다. 김씨가 찜질방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역사회 기업들이 손을 잡고 실시한 '저소득층 장애인 결연제' 덕분이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연순)이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에는 현재까지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와 산본시 종합스포츠메저센터 스포랜드가 동참의 뜻을 밝혔다.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는 연간 기부금 600만원을 지원해 군포시장애인복지관의 1급 지적

장애인 6~7명에게 의료지원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랜드도 근로시장에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저소득 장애인 이용료를 50% 감면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031)399-1087 글·사진=군포이벤이 기자

세만금 판결 대법관 13명중 6명

"정부는 친환경 대안 찾으라"

대법원이 세만금간척사업에 대해 개발권을 앞세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은 정부에 대해 친환경 대안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원장 이응준)은 3월 16일 전북도민, 종교·시민·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세만금사업계획 취소청구에 기각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만금사업을 중단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

어주면서도 소수의견을 통해 세만금 사업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명백히 했다. 이에 대해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과 인드라마생명공동체는 16일과 17일 발표한 호소문과 성명서를 통해 "세만금 간척사업의 타성적이고도 박제화된 강행은 사회호나 영산호처럼 '실패를 위한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며, 자칫하면 세계 최대의 '반경제, 반생명, 반평화의 웃음거리'를 참여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봉영 기자

법학자 70% '수업중 종교행위 위헌'

종자연, 법학교수 69명 설문결과

법학자 10명 가운데 7명은 특정한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전 학년 예배행위는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원장 박연순)이 법학교수 1000명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학내 종교자유 설문에서 응답한 69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71%가 '위헌·위법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 '학교설립 목적에 따라 가능하다'는 응답은 21.7%였다. 학교 공식행사 때 특정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40.6%

가 설립목적에 따라 가능하다고 본 반면, 55.1%는 위헌·위법 요소가 있다고 봤다. 수업시간 전 또는 방과 후에 강제로 종교행사에 참여시키는 행위의 위헌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응답이 85.5%에 달했다. 한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학교 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과 공동으로 3월 31일 오후 6시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개원기념식을 겸한 '학내 종교자유 신장을 위한 법적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봉영 기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장

특정종교 찬양발언 물의

권오승 신임 공정거래위원회장이 3월 16일 열린 취임식에서 특정종교를 찬양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권 위원장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취임사를 하게 됐다"며 "모든 일에 있어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에 비추어 소신이 없다면 밀어붙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권 위원장은 또 "사람들이 오해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인정해주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직원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7년 연구성과 집대성, 12권에

東大 BK21연구단, <불교문화사상사전집> 출간

동국대학교 BK21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단장 조용길·이하 연구단)은 국내외에서 진행된 7년 동안의 연구물을 통합적으로 묶어낸 <불교문화사상사전집> 시리즈 12권을 출간했다. <불교문화사상사전집>은 그 동안(1999년 12월~2006년 2월) 연구단이 '두뇌한국(BK21)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현장경험과 세미나, 학제 간 연구 등을 통해 불교사상과 문화사, 응용불교, 한국불교 등에서 도출해 낸 불교생태학의 정수를 그대로 담아냈다. <불교문화사상사전집>은 총 1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제12권은 연구단이 3년에 걸쳐 불교생태학 국제학술교류를 통해 이룩한 영어논문 성과를 한 곳에 모아 <불교생태학 영어논문>이라는 제목으로 단행본으로 만든 책이다. 이 책의 논문들은 연구단이 2004년부터 스리랑카 페라메니아대학, 영국의 런던대학교,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와 연차적으로 개최한 국제공동학술세미나 논문들을 편집하여 묶은 것이다. 1단계 BK21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조용길 단장은 "이번 출판물은 부처님의 교화 정신을 통한 불교 이념의 구현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7년 간 연구단이 연구한 결과물이다"며 "이러한 연구 성과물을 통하여 한국불교가 한층 더 발전함을 물론 한국 불교학 연구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자사호

명인 특별전

- 장소 | 동덕아트갤러리
- 일시 | 2006.3.31~4.3(4일간)
- 주최 | 명가원, 동양차도구연구소
- 문의 | 명가원 Tel. 02)736-5705

초청작가
고소배(顧紹培) 강소성공예미술대사
저립지(儲立之) 강소성공예미술명인·고급공예미술사
양근방(楊勤芳) 고급공예미술사

전시기간동안 1일 2회 중국다예사 공리
초청 특별 다예 시연 및 자사호 제작 시연
개회식 : 2006년 3월 31일 오후 2시

